

특별기획 **생명을 나누는 장기 기증 / (1) 장기 기증 현주소**

제주 기증 희망등록자 2016년 이후 ‘뚝’

올 1~8월 전국 기증 희망자 전년 동기대비 27% 줄어 장기 이식 대기자와 대기 기간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 기증 약속 도민 1만5507명... 등록률 전국평균보다 ↓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매해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4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장기기증을 약속한 희망 등록자 수는 전 국민의 3%에 불과하고, 올 들어서는 생명 나눔 열기마저 급격히 위축되면서 장기이식 대기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에 따르면 증가 추세를 보이던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난해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만 19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면서 2018년 7만763

명에서 2019년 9만350명으로 1만명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라는 악재가 겹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는 4만571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918명) 대비 27.3% 급감했다. 제주지역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수는 총 1만5507명으로 전 도민의 2.31%가 장기기증을 약속했다. 2012년 '장기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준히 희망 등록자수가 늘면서 2011년 기준 5407명에서 현재(2020년 8월 말 기준) 1만5507명으로 증가했다. 하지

만 연도별로는 2015년 1389명을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 세자릿수를 나타내다 2020년 8월 말 현재 역시 616명으로 세자릿수에 머물면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반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환자 수는 매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4만253명으로, 2018년 3만7217명보다 8.2%가 늘어났다. 반면 실제로 장기 이식이 이뤄지는 경우는 2017년 3987건, 2018년 3910건, 2019년 4299건 등 매년 4000건 안팎이다. 장기이식 대기자 수와 비교했을 때 실제 장기 이식은 1/10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에선 135명의 환자가 장기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대기 기간도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1169일, 2018년 1218일, 2019년엔 1228일을 기다렸다. 평균 3년 이상을 장기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셈이다. 하루 평균 7.5명의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기다리다 목숨을 잃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본부 관계자는 “제주의 경우 장기기증 희망 등록률은 전국 평균인 3%보다 낮은 수치이며, 이는 17개 지자체 중 15번째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온라인 홈페이지(www.donor.or.kr), 팩스(02-363-3163), 이메일(donor@donor.or.kr) 모두 가능하다. 우편물 수령을 원할 경우 1588-1589로 전화해 장기기증 희망등록서를 요청하면 주소지로 장기기증 희망등록서가 발송된다. 강대혜기자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집중단속 도 “오는 16~30일 합동단속반 운영”

추석을 앞둔 제주도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유관기관, 지역자생단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제주용·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허위표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로 점검 대상은 재래시장, 할인매장, 수산물 가공·유통업체 등이다. 단속 품목은 제주·선물용포인 갈치, 참조기, 옥돔, 고등어와 원산지

둔갑 사례가 많은 참돔, 꽃게, 오징어 등이다. 도는 수입산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벌금, 과태료 부과, 고발 등의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조동근 도 해양수산국장은 “원산지 허위 표시 등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공정한 생산·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윤기자 ty9456@ihalla.com

“제주공항 인근 장례식장 계획 철회하라”

도두동 주민들 기자회견

제주국제공항 주변에 장례식장 건설 계획이 알려지자 제주시 도두동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도두동 마을회·자생단체, 토지구획위원회, 오일장 상인회 등으로 구성된 도두동 장례식장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위)는 15일 제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공항 인근 장례식장 건설 개발 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사진 반대위는 “도두동 마을은 생활화수처리장 등 각종 혐오기피시설과 공항확장지구 등으로 묶여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받아온 지역으로 더 이상의 혐오시설과 기피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원천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공항 주변은 체계적 도시개발을 위해 도민들과 협의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하는 지역으로, 장례시설이 들어올 곳이 아니”라며



“공항서로는 제주공항 이용객들이 제주시내를 관통하지 않고 공항을 드나들며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됐는데, 오일장을 찾는 많은 차량들에 장례식장까지 들어서면 교통난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도시개발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제주관광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도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장례식장 조성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대혜기자 dhkang@ihalla.com

“코로나19 때문에...” 생존수영 이론 위주 실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생존수영'이 코로나19 여파로 이론 위주로 실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을 실기 위주의 교육에서 이론 교육 중심으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당초 생존수영 교육은 초등학교 1~2학년 3시간(1회), 3학년 4시간(2회) 이상, 4~6학년 10시간 이상의 실기교육으로 운영한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수영장 사용이 어려워지면서 '이론'을 위주로 교육 방법이 변경된다. 변경된 교육 방법은 초등학교 1~3학년 2시간 이상, 초등학교 4~6학년 4시간 이상의 이론교육으로 운영되며 내용은 물 두려움 없애기, 자가구조법, 기존구조법, 심폐소생술 등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론 교육 강사가 필요한 학교는 신청을 받아 강사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또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체육진흥회에서 제작한 '초등 생존수영 이론 수업 자료' 등 3종의 콘텐츠를 각 학교에 보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은범기자



맨드라미 배경으로 '찰칵' 15일 서귀포시 표선면 보름맞을 찾은 관광객들이 맨드라미를 배경으로 제주의 추억을 남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밤샘 주차 사업용 자동차 무더기 적발

제주시 읍들 347건 단속

차고지가 아닌 곳에 밤샘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사업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밤샘

주차 단속을 벌여 347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적발된 821건과 비교해 42% 줄어든 것이다. 여객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 공영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자동차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밤샘 주차에 따른 과징금은 영업형태별로 전세버스와 일반화물자동차 등은 20만원, 택시나 개인화물자동차는 10만원(1.5t 이하 화물차는 5만원) 등이다. 이상민기자

마라·가파도 여객선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운항관리센터,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합동으로 마라도와 가파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5척을 대상으로 추석 대비 특별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도는 14~15일 해양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안전담당 유관부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여객선을 점검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주요 점검 사항은 갑판·조타설비, 소방설비, 구명설비, 통신설비, 편의시설 등의 가동 여부였다. 점검 결과 사소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는 선박 수리 등 안전 조치한 후 선박을 운항토록 조치했다. 도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안전설비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To the Basic For the Future

기본에 충실한 대학, 미래를 준비하는 대학

2021학년도 제주대학교 수시 신입생 모집

- ▶ 접수기간: 2020.9.23.(수) 09:00 ~ 9.28.(월) 18:00
- ▶ 인터넷 접수: (주)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 제주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http://ibsi.jejunu.ac.kr>)
- ▶ 문의: (064)754-2043~5, 8238, 3990~5

제주대학교
JEJU NATIONAL UNIVERSITY

“학우들의 미래를 생각합니다”